



불교 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1년 제97호

총지종 포항 수인사 헌공불사 봉행 “아름다운 수행-복지 공간에서 밀법 홍포”



▲아름다운 전통 한옥 양식의 수인사 전경.

불교총지종 포항 수인사(주교 지공)는 11월 20일 서원당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하여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했다.

어 모든 번뇌를 끊고 보살도에 들어 청정한 과보를 증득한다고 설교하셨다"며 "수인사 도량이 보살도를 실천하고 무량중생(無量衆生)들의 옴니반메혹 염송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전당이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승 통리원장은 "신축불사를 위해 수인사 주교님과 스승님을 비롯 수인사 신정회 회장님과 교도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인욕하셨고 사원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셨다"며 "이런 정진과 지극한 발원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전법도량을 내려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제막을 시작으로 정각사 교도들의 율법공양, 개식사, 대비로자나불전 호념, 헌공사, 종령법어, 축사, 만다라 합창단의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은 인사말에서 "이 거룩한 부처님 도량이 있기까지 고생하셨던 효강 종령님을 비롯하여 원승 통리원장님과 승단 스승님들, 교도분들, 그리고 수인사 신정회회장님과 연흥건설 연필승 사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365일 염주를 들고 옴니반메혹을 외우며 불공한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지혜광명을 내려 주시어 불공하신 보살님들의 가정 가정에 해탈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인사 신정회 한애숙 회장은 "수인사 교도들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어떤 때는 괴로움에 울고, 어떤 날은 너무 기뻐서 웃던 시절들이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밀려 온다"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도량을 보내주신 것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더욱 더 용맹정진 하라는 법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원신축불사를 마무리 한 수인사는 연건평 380평 지상 4층의 아름다운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앞으로 경북지역의 수행과 문화, 복지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현과 밀법 포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집 화보 10면〉

신명나고 즐거운 수행공간 총지사, 다양한 교화방편으로 신심고취



▲총지사 다음카페 : cafe.daum.net/chongjisa.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라는 내용이 아침 일찍 총지사교도들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전달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교도들의 마음은 행복감이 가득하고 하루의 일과가 아름답다.

총지사(주교 선도원)는 최근 다음 카페개설, 경내 새단장,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요가 등 다양한 포교방법으로 교도들을 감동시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총지사는 몇 개월 전 공양처와 1층 휴게실 바닥과 벽을 정결하게 새단장하여 교도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총지사 중요한 행사 일정은 문자 메시지 알림이를 통해 전달되고, 자세한 내용은 총지사 다음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매일 첫째주에 시행하는 월초 불공기간에는 마음수련과 요가로 신명나는 시간을 보낸다. 공식불공 후 요가수업으로 육체적 건강과 마음수련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요가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 요가수업은 경련

된 근육이완과 호흡법 운동으로 웃음과 행복의 꽃이 활짝핀다.

총지사 다음카페는 총지사 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름다운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으며,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카페에 올리면서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다. 총지사 한 교도는 "총지사와 거리가 먼 경기도에 살고 있어 총지사에 자주 나오기 쉽지 않지만 문자 메시지와 카페를 통해 교도들과 불심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어 나태해진 신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총지사의 다양하고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행하여 불교도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총지사의 이러한 새로운 포교 전략은 그동안 소극적인 포교방법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교도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며 일체감을 형성하고, 비싼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포교를 지향하고 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은 부처님 법문” ‘한마음 가을 음악회’ 열려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교구장 대원) 및 신정회 지회(회장 신인록)가 11월 16일 오후 7시 부산 명륜동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마음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과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한 이번 음악회에선 종립 동해중 풍물패의 신명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펼쳐진 이번 음악회에선 부산 경남

교구 교도와 자녀들의 국악 가요 공연을 비롯해 가요 부르기,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찬불가, 동해중학교 교직원과 학생 공연, 연예인 만담과 노래, 춤, 마술 공연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종립 동해중 학생들의 풍물 공연.

원승 통리원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한 곡의 협주곡을 만드는 합창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

는 세상도 서로서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명심, 그리고 나와 남의 차별 없는 동체대비심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화합의 세상을 만들자"고 전했다.

증조법설

양극(兩極)을 피하는 것이 밀교(密敎)다

물질(物質)과 정신(精神)이 양극(兩極)을 달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만 택해서도 안 된다. 정신과 물질이 병진(併進)해야 한다. 이것이 색심불이(色心不二)이며 중도법(中道法)이다.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복지구족(福祉具足)이 되는 것이다.

10면 수인사 헌공불사 특집 화보

12면 진언행자를 찾아서 / 관성사

총기 36년 창교절 기념 행사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기 36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마련했사오니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일시 : 총기 36년 12월 24일 오후 4시30분
- ◆ 장소 : 서울 총지사



서울 경인교구 및 지회



사설

창교절을 맞아 생각한다

오는 24일은 우리 총지종이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자 개산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종단은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그 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 오면서 흔들림 없는 총지로 오늘의 총지종을 만들었다.

특히 선대의 스승님들과 신심 강한 교도들의 종단에 대한 헌신은 우리 종단을 반석에 올려놓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우리 종단은 수많은 불교종단들의 난립 가운데서 유수의 종단으로 교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음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종단은 재가불교이지만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정도의 길을 걸어 왔다.

최근에 국제재가불교대회를 개최하여 재가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앞으로의 항방을 모색한 것은 생활불교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로 중요한 일대기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종단중흥과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실질적인 개혁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리원과 법정원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져야 하며 거기에 따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선사원 스승들과 교도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법안과 실행안을 마련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며 사고(思考)의 전환(轉換)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어느 단체나 그러하지만 종단발전을 위한 인제의 중시는 도약과 중흥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아울러 명심해야 한다.

어느덧 창종 40년을 목전에 둔 지금 각자가 종단발전과 중흥을 위해 더욱더 많은 용맹정진이 절실하다.

정보화시대 포교방법 개발 시급

20년여 전부터 정보화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더니 이제 시초를 다투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 물결로 컴퓨터와 디지털 전자제품의 출현은 문명 아닌 문명이 탄생되는가하면 세대간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어 심한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다.

젊은 층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정보의 흐름에 동승하며 적응하고, 새로운 정보매체를 개발하고 연출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는 빠른 정보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나태해지며, 시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종교단체도 정보의 물결로 사찰 법당과 교회 예배당은 이미 디지털 전자제품이 출현하여 각종 동영상 자료제작 및 표현, 다양한 음향효과와 이미지 효과로 생동감과 활동적인 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신도들에게 감동과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며 포교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종교의 본래적인 주체성을 살리되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사이버 법당, 사이버 가족법회 등 정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개발하여 정보화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종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 포교방법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온라인을 통해 세대간의 벽을 허물 수 있으며, 세대간 단절된 대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중생제도 위한 첫걸음”

총지종 시무 및 종무원 교육



총지종(총리원장 원승)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총리원에서 제1차 시무교육 및 종무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무와 종무원 교육은 효강 중

화령정사의 “근본불교”, 총무부장 경원정사의 “종무행정”, 사회부장 인선정사의 “불사의계”, 지인사 주교 연동원 전수의 “생활속의 불교”, 밀인사 주교 법등정사의 “수행인의 자세”의 과목 등으로 진행되었다.

시무와 종무원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들은 수료식과 함께 정식 시무발령을 받아 일선사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최소한 7개월 동안 수행자로서 중생제도를 위한 교화방편과 수행, 교리를 연마하게 된다.

시무발령 사항은 건화사 이호석(덕광), 김지은(보현), 정각사 함영옥(지현), 지인사 박성혜(모홍)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는 불국토”

총지사, 사찰순례 및 포항제철 견학



11월 19일 총지사 교도들이 사찰순례를 가졌다. 경주국광사에서 한 컷.

서울 총지사(주교 선도원)는 11월 18일~19일 양일간 경주국광사와 불국사, 기림사, 골굴사 등 사찰순례와 포항제철을 견학하고

공동체 정신 함양하고, 불자로써 굳건한 신심을 고취시켰다.

첫 날인 18일에는 총지종 경주국광사를 방문했으며, 전 총리원장 우승 정사와 교도들의 환대를 받았다. 같은 날 신라 천년고찰 불국사와 아

나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허물 고치는 불공”을 정하였을 때에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나를 제대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나의 단점과 허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언수행의 길

허물불공(참회불공)

허물불공은 ‘내 허물을 찾아서 고치는 불공’이다. 즉 참회불공을 말한다. 내 허물을 고치는 데서 좁게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 지고 크게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참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허물은 찾을 수가 없다. 나의 허물을 고쳐 나갈 때 수행에는 커다란 진전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내 허물 고치는 불공’은 대개 창교절을 회향하는 날로 정하고,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49일간 정진한다. 그야말로 진정한 내 불공 기간인 것이다. 11

월 일초불공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허물 고치는 불공”을 정하였을 때에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나를 제대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나의 단점과 허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택불공(가정불공)

진택불공은 가정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교도와 함께 가정평안과 소원성취를 위해 올리는 불공이다. 진택불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였을 때(신축 수리의 경우)와 안택(安宅)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이다.

진택불공의 목적은 가정에 일체재인이 없기를 서원하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서원하는 데 있다.

진택불공은 교도가정을 방문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정에서 행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에는 서원당에서 행하기도 한다. 이를 독불공(獨佛供)이라 한다.

서원당에서는 시간관계상 개인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교도들을 같은 시간에 한 데 모아서 행하고 있다. 진택불공 일정은 사원의 스승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상의하여 정한다.

수능과 참교육

고3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끝내고 논술과 구술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성적의 상위권에 있는 한 학생은 서울대반에 편성되어 오후6시까지 논술수업을 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논술학원에서 강의 듣는다.

구술시험을 대비해 99만원 5회 코스를 학원에 예약해 놓고 있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행능력평가(수능)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평상시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을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처음 수행능력평가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자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되었는가?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수행능력을 증명하기위해 사교육 현장을 찾는 학생들을 더 많이 양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교육이란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잘하는 능력을 키워 그 사람의 내면적 능력(마음)을 향상시키는 전인(全人)적인 사람, homo capax universi

를 담는다)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국어 시험점수를 위한교육, 수학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이 되어 버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 모든 학생들을 서울대학에 또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합니까?

교육에서 평가를 뺄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인간의 내면 즉 마음을 수지로 형상화하여 드러내 보이는 행위가 평가의 본 목적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평가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평가라는 자를 인간에게 적용함에 그 누구도 곁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대학입학을 위한 점수 가르기식의 평가제도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이 학생은 “수능 시험이 끝난 요즘 반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바쁘다.”고 말한다.

과연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반 친구들과 눈 마주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이 참교육일까?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반문하고 싶다.

알림방

▶24일 창교절 기념법회를 전국 각 사원에서 봉행합니다.

▶3일부터 9일까지 월초불공을 봉행합니다.

▶24일 전국 각 사원에서는 자기 허물 불공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24일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 창교절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4시30분 총지사.

▶11월 중보통신원 발대식을 가행합니다.

오후 2시 총지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11. 5 5,000	기로원 수증원 11. 21 10,000	백월사 류승태 11. 26 10,000	실보사 송희준 11. 19 10,000	총지사 장근도 11. 27 10,000
개천사 김수양 11. 13 50,000	기로원 자선화 11. 21 10,000	백월사 박삼순 11. 26 10,000	실보사 배건백 11. 27 5,000	총지사 임동수 11. 19 10,000
개천사 경 원 11. 14 10,000	단음사 박주열 11. 23 10,000	법천사 김정숙 11. 12 5,000	실지사 손정우 11. 26 10,000	총리원 지 정 11. 21 20,000
개천사 정법수 11. 14 10,000	단음사 박호열 11. 23 10,000	법천사 시 정 11. 21 10,000	실지사 정우석 11. 13 10,000	해정사 최영례 11. 14 10,000
개천사 이희권 11. 22 10,000	단향사 이재은 11. 5 10,000	법천사 원만원 11. 21 10,000	실지사 록 경 11. 26 10,000	해정사 서 령 11. 22 10,000
개천사 무명씨 11. 23 5,000	단향사 행원심 11. 5 10,000	법천사 박말조 11. 21 5,000	실지사 범수연 11. 26 10,000	해정사 혜원정 11. 22 10,000
개천사 한영란 11. 26 1,000,000	만보사 배정임 11. 13 10,000	벽룡사 이봉희 11. 20 10,000	실지사 박병성 11. 26 5,000	해정사 오혜민 11. 22 10,000
관성사 해 정 11. 1 10,000	만보사 지 성 11. 14 10,000	벽룡사 이희숙 11. 22 10,000	운천사 박보경 11. 27 20,000	화음사 류재환 11. 21 10,000
관성사 정법계 11. 1 10,000	만보사 승효제 11. 14 10,000	삼밀사 원 송 11. 6 10,000	정각사 김문수 11. 1 10,000	화음사 수 현 11. 27 10,000
관성사 정인순 11. 12 10,000	무명씨 11. 26 10,000	삼밀사 인법계 11. 6 10,000	정각사 김문수 11. 13 10,000	화음사 자심관 11. 27 10,000
관성사 해 정 11. 14 10,000	밀인사 신대식 11. 23 5,000	삼밀사 김주희 11. 9 20,000	정각사 박수빈 11. 20 10,000	화음사 이도희 11. 27 20,000
관성사 정법계 11. 14 10,000	밀인사 이해성 11. 23 5,000	선립사 심지장 11. 14 10,000	정각사 이란이 11. 21 10,000	화음사 정순향 11. 27 10,000
관성사 수 정 11. 19 30,000	밀인사 신동희 11. 23 5,000	선립사 정복지 11. 14 10,000	정각사 구정희 11. 22 20,000	화음사 권정희 11. 27 5,000
관성사 박현숙 11. 20 10,000	밀인사 신동의 11. 23 5,000	선립사 대 덕 11. 21 10,000	정각사 조현필 11. 23 5,000	화음사 이필순 11. 27 10,000
관성사 황성녀 11. 22 10,000	밀인사 무명씨 11. 26 10,000	성화사 우현정 11. 19 10,000	정각사 변순개 11. 26 5,000	화음사 강승훈 11. 27 10,000
기로원 상지화 11. 21 10,000	밀인사 정정희 11. 26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1. 19 10,000	정각사 윤선자 11. 26 10,000	정희연 11. 19 10,000
기로원 불멸심 11. 21 10,000	밀인사 이연수 11. 27 10,000	수인사 권오남 11. 21 20,000	정각사 윤선자 11. 26 10,000	
기로원 법장화 11. 21 10,000	밀행사 석우성 11. 2 20,000	수인사 한애숙 11. 26 20,000	정심사 오윤보 11. 23 5,000	
기로원 대자행 11. 21 10,000	백월사 박인철 11. 23 5,000	수인사 김봉기 11. 27 10,000	지인사 허성룡 11. 16 10,000	
기로원 대 관 11. 21 10,000	백월사 박인국 11. 23 5,000	실보사 박정빈 11. 12 5,000	총지사 김은숙 11. 13 30,000	
			총지사 선도원 11. 27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자원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당신을 매어 놓은 말뚝을 보라



없는 것이 아니라
보리(善提)가 있는 것
이다.

나를 아는 일은
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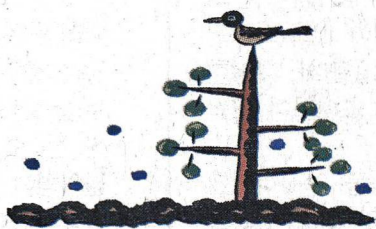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부처는 열린 중생이요
중생은 닫힌 부처이다.



-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지금이 그때라니



숨이 막
힐 정도로
햇볕이 따
갑고 더운
여름날,
용 스님
이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포고버섯을 말리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연로한 용 스님이 팟방울을 똑똑 흘
리면서 버섯을 뒤집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스님
이 안쓰럽게 여겨서 물었다.
"어째서 젊은 사람을 시키지 않고 그 힘든 일을
손수하시니까?"
"남을 시키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렇게 꼭 햇볕이
따가운 날 해야 합니까?"
"날이 더운 건 나도 아네. 허나 지금이 아니고서
야 언제 포고버섯을 말릴 수 있던 말인가?"

-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깨어 있음

깨달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은

이달의 명상

한 해를 넘긴다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을 돌이켜 보고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지만,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비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
묵은 것은 갖고
이쉬움도 가슴에 머무
를 여지없이
아침 해는 달려오는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 희망을 내다보는
희망이 12월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가고 오는 사이에 이
루어지는 것과

가고 읊이 없는 것도 있다.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과 수행의 증상이요,
가고 읊이 없는 것은 부처님 법문에 머무
는 우리의 생활일 게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천수경편 제2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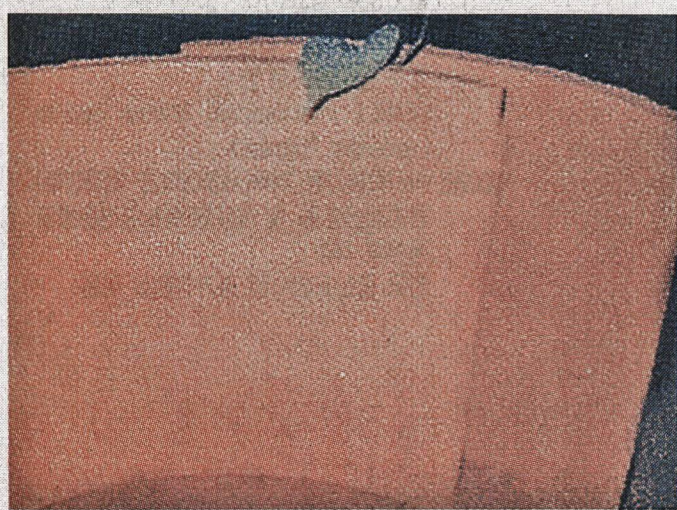
글.그림/정수일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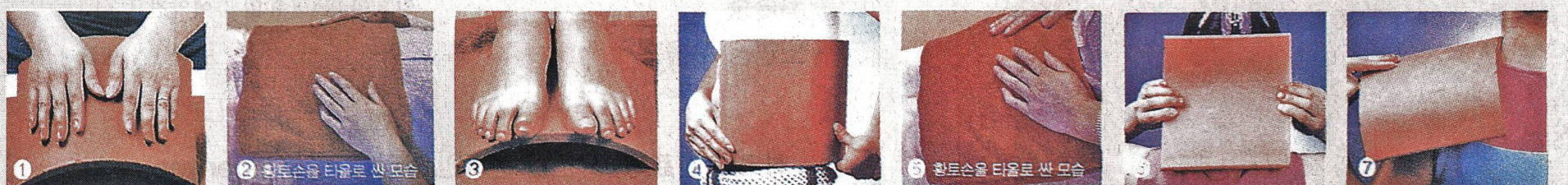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
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와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
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①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②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대위주는 모습 ③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울려 놓는다. ④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⑤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⑥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⑦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
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⑧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영치통 등)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세계속의 불교 ⑤

The Lay Community's Role in the Expansion of Buddhism Worldwide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와 재야 교왕의 역할

총기잡이 주최한 제1회 세계재가불자 대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요약정리 하였다. - 편집자 주



주디 윌포

로터스 가든 명상센터 지도자 겸 위원회 위원, 샴텐 체 자비회 - 미국

INTRODUCTION(소개)

지난 20년간 서양 불교인의 수는 계파를 불문하고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불교가 서양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훌륭한 재가 수행자들이 기존 승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교를 정착시켜갈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은 다수의 스승들이 서구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줬으며, 서구 학생들은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불교 스승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서구 학생들은 스스로를 위해 선 수행의 효력을 공부하고 경험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 특히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회의적이던 학생들이었다.

DEMOGRAPHIC TRENDS IN WESTERN BUDDHISM (서구 불교에 관한 통계 동향)

많은 사람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즉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구에서 불교의 교세가 부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에 불교가 뿌리내린 것은 중국과 일본의 이민자들이 몰려온 18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60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가운데 1명은 중국인이었다. 이 이민자들은 각양각색의 불교를 들여왔으며, 상대적으로 비이민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있었다. 유럽 불교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까지는 주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으며,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불교가 자리매김한 것은 1970년에 이르러서였다.

서양 불자는 240만에서 9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교학자 마틴 바우만 교수는 1990년대 중반 불교 관련 통계를 시도한 결과, 미국에 3백만 내지 4백만, 러시아에 1만, 프랑스 6십5만, 영국 18만, 독일

THE CREATION OF LOTUS GARDEN RETREAT CENTER: A WESTERN TIBETAN BUDDHIST RETREAT CENTER (Virginia, USA)(로터스 가든 명상 센터: 웨스턴 티벳 불교 명상 센터(미국, 버지니아))

94년 닝그마와 젯선 카규 계파의 저명한 티벳 불교 스승 칸드로 린포체가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불자 학생들에게 일련의 간단한 법문을 설해주었다. 이 분은 민틀링 트리첸 성하의 따님이시자 티벳 불교 닝그마 교파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2살 때 16대 카르마파 성하에 의해 당대 최고 비구니 스승으로 알려졌고

늘어만 가는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임대해야 했다.

1999년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로부터 2백명 이상의 학생들이 3주간의 긴 명상에 참여했다.

2003년 버지니아의 시골 땅 200에이커를 구입하여 <로터스 가든 명상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로터스 가든>은 고전 불경과 수행에 관한 린포체의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1년 과정의 불교 대학 세드라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교파의 티벳불교 스승들을 초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드라 학습과정은 학생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티벳어 강좌 및 의례 교육을 병행하여 개인 및 집단 명상수련이 1년 내내 계속되며 이들의 강렬한 개인수행 욕구에 부응하여 12개동의 선방 공사가 진행 중이다. 3년 과정의 명상수련 시설과 장기체류 학생들을 위한 건물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은 년중 일정 기간을 인도의 린포체 수도원의 수행에 참여하기도 한다.

CONCLUSION(결론)

최근 설립된 티벳불교 명상센터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서양에서의 재가불자에 의한 불교신앙의 특이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통해 우리는 서구 불자들의 불교공부와 실천에 관한 강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욕구가 전통적인 수련으로 단련된 스님들의 자발심 내지 열린마음과 조우한다면, 서구 재가불자들 역시 엄격한 교육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정도로 훌륭한 수준에서 불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낮은 불교개념들을 친숙한 서구의 개념으로 "옮길 수" 있는 더욱 숙련된 재가불자들의 도움을 통한, 수련과정의 교육을 위한 구조화된 지원은 재가불자들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중요한 불교신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사회참여적 불교의 실천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더욱 불교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대중들은 이러한 실천적 예로부터 불교가 가르쳐주는 무욕(무심)의 이상을 배워 가고 있다.



세계 재가불자대회 참석자 기념촬영.

15만, 나머지 유럽 전역에 60만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는 적어도 서구 불자의 3분의2 가량은 개종 불자라기 보다는 이민자들로 추정한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2백2십만 내지 3백 2십만 정도가 이민자로서 전통적 불자이며, 팔십만 명의 개종자와 대비를 이룬다.

서구 불자들 가운데는 티벳, 일본 및 극동의 불교가 강세를 보인다. 불교마다 자신들의 사원을 건립하면서 서구 불교는 주로 재가 불자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티벳 불교 명상 센터인, 미국 버지니아 스텐리의 로터스 가든 명상 센터를 살펴보면, 서구에서 영향력 있는 기존 재가 불자들 사이에 불교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추르푸의 위대한 다카니의 환생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린포체는, 달라이 라마 성하, 민틀링 성하, 델고 켄체 성하, 트룰지 란포체 전하, 체트를 린포체 전하, 툴루 우지엔 린포체 등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들로부터 참구하고 전수받은 분이다.

1944년 린포체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볼티모어의 학생들 모두는 이미 선 수행을 경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가운데 많은 학생들은 10년 이상 티벳 불교와 선불교의 전통을 공부해 왔었다.

린포체는 학생들을 위해 수년 기간의 교육과정과 수행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린포체의 법어는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

총기잡이보감

중년 남성 우울증



김장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크게 늘고 있다. 사춘기에 이어 일생에서 가장 큰 생리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데다 경제적 불안이 닥치고 사회 및 가정에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신과에서 우울증은 감기에 비유한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초로기 우울증은 행동이나 증상부터 다르다. 불안, 초조, 고민이 많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거리거나

머리를 쥐어뜯고,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움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피해망상에도 곧잘 빠진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재산 등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암 등 불치병에 걸려 어떤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믿어버린다. 신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두꺼움, 두통, 어깨 결림, 현기증,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년 남성의 우울증은 체력 저하와 더불어 구조조정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위기가 겹침으로써 생긴 현상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정보화 사회는 중년 남성에게 발빠른 신식식과 정보 흡수를 요구하지만 힘에 부치는게 사실이다. 가정도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대개 자녀들의 대학 진학, 결혼 등을 앞두고 경제적 지출이 증가한다. 부모도 연로해지면서 경제적, 정신적 의존도가 커지고 병 뒤바라지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부인이 남편을 신경써서 챙겨줄 여력도,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인다.

중년 남성들은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이동수 교수는 "우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떤 종류건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찾아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의 동호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좋다.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저하되는 체력을 향상시키고 기분 전환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일상생활이 나날이 위축되면 서 우울감이 심해지면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죽비소리

마음을 닦지 않으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닦지 않고 항상 나쁜 행동에 습관이 되어, 착한 법과 악한 법, 좋은 것과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며, 무상하고 달라지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일신의 재산과 사업이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출요경 出曜經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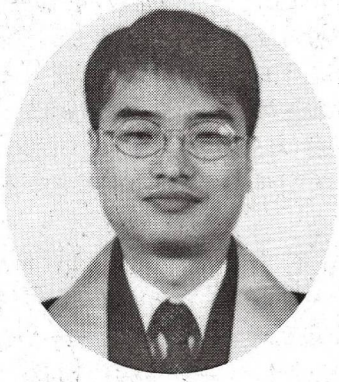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지상설법

“상대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 고칠지니...”



인선

〈마산 윤천사 주교〉

종단에서 행하는 공식불공으로 새해 초에 하는 신년불공 매월 하는 월초불공 상, 하반기 49일 불공이 있습니다. 이외에 부산·경남교구에서는 창교절인 12월 24일에 회향하는 내 허물 참회불공을 보살님 각자의 근기에 따라 49일 또는 100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내 허물참회 불공기간 중에 있으므로 그래서 저는 내 허물 참회불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옛 날에 제석전왕이 허물주머니를 두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상대의 허물주머니고 또 하나는 자신의 허물주머니인데 두 주머니를 서로 줄로 연결하여 두 주머니가 잘 보이도록 가슴 양쪽에 오도록 해서 사람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은 물론 자기의 허물도 잘 알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만 자기 허물주머

니가 등 뒤쪽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허물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의 잘못은 잘 보고 지적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내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

볼 보지 말고 내 허물 고칠지니 나에게도 무시 이래 몸과 입과 뜻으로서 지어 모은 큰 허물이 수미산과 같은지라 내가 먼저 회사하고 그와 같은 큰 허물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 도로 복이 되어 일체 고통 소멸되며 내 허물이 없어질 때 저허물 없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일체고통은 내 허물로 인한 것이므로 나 자신의 지나는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은 바르게 고치고 잘못 지은 업은

하고 억압하고 나무라기만 했지 무엇을 해 준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생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으로서 지난 날 잘못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노라고 사과를 하였고 동생도 반신반의하면서 나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날 이후로는 동생을 만나거나 대화 할 때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동생의 의견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체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상호간에 원망심과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허물 참회불공을 통하여 모르고 지어왔던 죄를 알게 되고 내 허물을 참회함으로써 상대에 있던 원망심과 증오심을 없애게 되고 이전의 어둡고 불행한 가족에서 새롭고 행복한 가족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식들을 위해서 불공하고 조상부묘전도를 위해서 불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교도님들 자신의 업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의 일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내가 남편과 자식으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도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의 복덕이 없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덕 짓기를 노력하고 나의 허물을 하나 하나 깨쳐 참회하고 정진해나간다면 자연히 업은 녹아 내려서 일체의 고통이 소멸되고 내가 바라는 남편과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 우리 자식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허물 참회불공 속에 내 가정 해탈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고 복덕이 없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만약 허물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성을 내지 않을 것이다.”

- 대승이취육비리밀다경

내 허물 참회불공 - 악업 반성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

“내게 허물이 없다면 상대가 성내지 않을 것”

볼 여유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든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부모가 나에게 해 준 것이 있느냐” 하고,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불행”하고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모든 것이 상대의 탓이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 자신이 그러한 업을 지었기에 그러한 부모와 남편 그리고 자식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정성사님께서 “상대

참회를 통하여 반성하고 뉘우침으로서 두 번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내 허물 참회불공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 허물 참회 불공기간동안 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단에 교무로서 생활 할 때입니다. 내 허물 참회불공을 정하고 그 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원당에서 불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삼남매의 맏이인데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불공 중에 문득 남동생에게 형으로서 명령

을 존중하려고 하였고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동생도 조금씩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한 형제로서 우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모든 일에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으로 저 자신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 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모두가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이나까 하면서 상대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에 깊은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었다. ‘무엇이 있어 생(生)이 있고 무엇을 인연하여 생이 있는가?’ 그렇다 취(取)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며, 취를 인연하여 존재가 있다. 취는 사물에 맞붙이고 집착하여 돌아보고 생각하여 마음이 거기에 묶이면, 애욕이 더하고 자라나게 된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취가 있고, 또 욕망을 인연하므로 취가 있다. 취를 인연하여 존재가 있고 존재를 인연하여 생이 있으며, 생을 인연하여 노, 병, 사와 걱정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심과 괴로움도 멀한다. 이렇게 해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멀하는 것이다.

기름과 심지로 등불을 켜는 것이므로 기름을 더하거나 심지를 뜯지 않으면 등불은 오래지 않아 꺼지고 말 것이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덧없이 생멸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여, 욕망을 끊어 버리고 마음이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묶이어서 집착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괴로움의 무더기도 멀해 없어질 것이다.”

달은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차 가듯이, 선지식도 배우는 이로 하여금 나쁜 법은 멀리하고 선한 법은 자라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본래 계행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한 지경이 없었더라도 단박 갖추게 됩니다.

진실한 선지식은 여래와 보살이요, 여래와 보살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소. 중생의 병과 그 약을 알고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낫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에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병이 있소. 탐욕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해골을 생각하게 하고, 성냄의 병에 걸린 사람은 자비한 것을 생각하게 하며, 어리석음의 병에 걸린 사람은 심이인연(*중생의 생존은 열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무명(無明)에 의해서 행(行)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識)이 있고, 이와같이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가 있게 된다)를 생각하게 하여 각기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요. 여래와 보살은 또 뱀사공과 같소. 나고 죽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너게 해주기 때문이요.

여래와 보살은 모든 선한 법의 바탕이요. 그러므로 중생들은 여래와 보살로 인해 선한 법을 갖추게 되는 것이요. 마치 모든 약초가 히말리아에서 나오듯이, 모든 선한 법은 여래와 보살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여래와 보살은 선지식이요. 중생들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르면 번뇌의 병을 없애고 열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요.”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진리의 여울

〈잡아함 불전경〉

등불은 기름과 심지를 인연하여 켜지고 기름과 심지를 더하면 오래 가게 된다. 그와 같이 사물을 취하고 맞붙이고 집착하며 돌아보고 생각하면 욕망의 무더기는 더하고 자라난다.

그때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없어야 노, 병, 사가 없어질까?’ 그렇다, 생이 없으면 노, 병, 사도 없을 것이다. 존재가 없으면 생도 없다. 취가 없으면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욕망을 떠나 마음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묶이지 않으면 욕망도 곧 멀할 것이다. 그 욕망이 멀하면 취가 멀하고, 취가 멀하면 존재가 멀하고, 존재가 멀하면 생이 멀하고, 노, 병, 사와 걱정 근

부처님께서 고귀덕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이란 부처님과 보살과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이요. 그들은 중생을 교화하여 열 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열 가지 선한 업을 쌓게 하기 때문이요. 또 선지식은 법대로 말하고 말대로 행동합니다. 스스로 살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생하지 않게 하며, 스스로 도를 닦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를 가르쳐 닦게 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은 돌보지 않고 항상 중생을 위해 즐거움을 구하며 남의 허물을 불지라도 그의 단점을 말하지 않으며, 남을 위해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선지식이요. 허공에 걸린

괴로움을 없애려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 혼자 고요한 곳에 앉아 선정을 닦다가 이렇게 생각했었다. ‘세상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생, 노, 병, 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생, 노, 병, 사와 그것이 의지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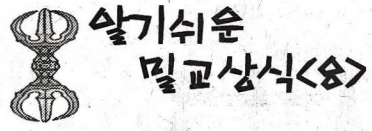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혼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은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티벳밀교 ④

사카파

사카라는 말은 티벳어로 회색늑이라는 의미이다. 이 파의 본산에는 회백색의 암석이 있기 때문에 절 이름도 사카사라고 하며 이름도 사카파라고 했다. 이 파의 승려들은 붉은 모자를 쓰기 때문에 '홍교(紅教)'라고 불리며 사원이나 신도들의 집에도 문수를 상징하는 홍색, 관음을 상징하는 백색, 금강수보살을 상징하는 남색의 세 가지 색을 두르기 때문에 화교(花敎)라고도 불린다. 이 파의 창시인은 공제제포이다. 이 파는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중엽에 걸쳐 티벳의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제5대 조사 빠스파가 원세조 쿠빌라이의 스승이 됨으로써 전국 각지의 불사를 관장했다. 14세기 중엽 이후 원나라가 쇠약해지면서 사카파의 세력도 쇠퇴했다.

사카파는 '도과법(道果法)'이라는 것을 교의로 삼는데 수행자는 일체의 상견과 단견을 끊고 일정한 수행차제에 따라 수행하면 일체지를 얻어 정과(正果)를 이룬다는 것이다. 사카파의 각 지파의 견해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카파의 독특한 수행법으로는 역시 도과법을 들 수 있으며 거기에는 '명공무집(明空無執)' 혹은 '생사열반무별(生死涅槃無別)' 등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까꾸파

까꾸파는 11세기에 형성된 교파인데 '까꾸'라는 말은 '입으로 전승한다'는 의미이다. 까꾸파의 승려들은 흰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백교(白敎)'라고도 불린다. 이 파는 주로 구두의 전승에 의하여 밀법을 전하며 티벳의 전 지역에 많은 지파로 나누어져 있다. 이 파의 창시자는 마루빠인데 15세에 성명학(聲明學: 언어학)을 배우고 인도와 네팔 등지로 가 108인의 스승을 모시며 무상유가부 밀교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성적인 행법을 실천 반야모 판뜨라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유명한 밀라레빠가 있다.

까꾸파의 수행법은 용수의 중관론을 기초로 이루어진 '대수인법(大手印法)'을 위주로 한다. 이것은 현교와 밀교를 겸수하는 것으로 먼저 자기의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분별심을 없앤다. 그런 다음 그 마음이 공인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인데 이것을 '공지해탈합일(空智解脫合一)'이라고 하며 성불의 경지로 본

다. 까꾸파의 최고 수행법은 무상유가밀교의 '쌍신수법(雙身修法)'으로 서 남녀의 교합이라는 상징성을 통하여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이다.

겔룩파

겔룩파는 티벳밀교에서 가장 늦게 15세기 초에 형성된 종파이다. 이것은 종가파가 까답파의 교리를 기초로 하여 세운 것으로서 발전 과정 중에서 활불(活佛)에 의하여 세습되는 제도를 갖추었다. 즉 달라이라마와 판첸 라마의 양대 활불 제도에 의하여 법맥이 이어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큰 스승이라는 뜻이며 아울러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되고 있다. 17세기에 달라이 라마 5세에 의하여 티벳의 정치와 종교가 장악된 이래 현재의 14세 달라이 라마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에도 티벳의 종교와 정치를 관장하는 가장 큰 종파가 되었다. 창시자 종가파는 100여 종이나 되는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보리도차제광론)과 (밀중도차제광론)이다. 종가파는 티벳밀교의 각종 교리의 장점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경전에 의거하여 계통을 세워서 사람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었다.

겔룩파는 계율을 중시하며 '연기상공(緣起性空)'의 견지에서 기본사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석가여래의 정법은 교(敎)와 증(證)에 있으며 교는 모든 경, 율, 론에 들어 있고 증은 계, 공, 해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겔룩파는 삼장을 중시하여 순서대로 닦을 것을 주장했으며 바른 견해와 실천을 중시했다. 현교의 바탕 위에 밀교의 수행법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이 겔룩파의 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현교와 밀교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겔룩파가 티벳밀교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근대에 와서 티벳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수많은 망명객들로 인해서 티벳밀교가 세계로 확산되는 기현상을 빚었다. 현재 많은 티벳인들이 전 세계에 불교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달라이 라마의 활약으로 인해 티벳 불교는 이제 세계불교의 주류의 하나가 되고 있다. 티벳은 사라진 불교문화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밀교의 재발굴에 있어서는 더 없이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령(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불교설화 <17>

염불공덕으로 환생한 선비

- 울진 불영사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16세기 초 중종 때의 일이다. 서울의 남산 중턱에 한 선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백극재라 하였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민씨였다.

그 선비는 생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구한 날 책만 읽었다. 부인 민씨가 간신히 생계를 이어 나갔다. 이웃집 허드렛 일이며 친정의 일까지 도맡아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곤 했다.

민 여인은 어릴 때부터 착한 마음씨에다 부처님을 믿는 독실한 불자였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절에 가는 것은 아예 포기할 정도였다. 그녀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염불하고 집에서 경을 읽었다. 참선도 집에서 했다.

그녀는 남편의 영달을 위해 기도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워 더욱 열심히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기도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게 해주십시오. 제 남편이 벼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스님네에게도 공양하겠습니다. 불사에 힘쓰겠습니다. 절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성심껏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비읍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고 참선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자비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제일의 염불이요 기도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기 1년, 남편 백극재는 과거에 응시했다. 기도의 공덕이 있을까.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마침내 강원도 울진 부사를 부임 받았다. 둘은 너무나 기뻐다. 부임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나는 듯 가벼웠다. 풀잎도 나무도 쏟아붓는 햇살 기동도 모두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세상이 온통 그들 둘만의 것이었다.

울진에 이르러 축하를 받고, 고을의 형편을 두루 돌아보았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사흘째 밤 백 부사는 신음소리 하나없이 숨을 거두었다. 놀란 것은 부인 민씨만이 아니었다. 지방장관들을 비롯해 온 고을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동헌으로 모여들었다. 이제껏 한 번도 없던 일이었기에. 정신없이 사흘을 내쳐 울다가 민 여인은 모여든 장관들과 육방관속들에게 물었다. "이 고을에 절이 있을 것이오. 특히 영험한 절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이방이 대답했다. "예, 불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절로 많은 영험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 정종탑이 있고 그 탑을 위하여 세운 탑전 내에 모셔진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합니다." 민 여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임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다. 부처님의 은혜로 영달을 입고도 그 공덕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참회의 눈물만을 짓고 있을 새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또의 상여를 그 불영사로 옮겨 주시오."

"절이란 장지가 아니옵니다. 절은 영혼을 천도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으나 시신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소. 그러니 어서 그 절로 옮기시오."

"지방장관들이 이미 장지를 북문 밖에 정했습니

다만.."

"여러 말할 시간이 없소. 어서 사또의 상여를 불영사로 옮기시오." 관속들은 지엄한 민 여인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상여를 메고 불영사에 이르렀다. 불영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임주가 나와 탑전 앞에 관을 안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녀는 손수 목탁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굽어살피소서. 저의 부군 백부사를 다시 살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내외가 그토록 어렵게 살 때에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곳 울진 부사로 명받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사오나, 어찌하여 이다지도 빨리 저희에게서 기쁨을 거두어 가신단 말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 이시여,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루 낮이 지나고 밤이 다가왔지만 민 여인의 기도는 여전했다. 민 여인은 참회기도를 올렸다.

"제가 어리석어 잠시 동안 부처님을 잊었습니



다. 남편의 출세에만 마음이 들떠 부처님의 공덕을 잊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다시는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당신은 온갖 공을 지닌 분입니다. 제 남편을 다시 살릴 수 있으십니까. 5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다시 환생하여 저희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덕치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은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제 남편을 당신의 그 뛰어난 가피력으로 다시 살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스님들이 그만 감화되고 말았다. 그들도 함께 목탁을 들고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흘 낮이 지나고 밤을 맞았다.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밤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다. 산사의 고요한 적막도 탑전을 에워싸고 기도의 음성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가을 밤이라 냉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 여인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 달끝만큼도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심하는 일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염불삼매에 들어 생각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

분은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능하지 못한 바가 없다. 부처님은 반드시 내 남편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나의 이 마음은 확고하다.'

이처럼 기도하는 민 여인의 눈에 불가사의한 현상이 들어왔다. 남편의 시신을 모신 관 틈에서 웬 희뿌연 물체가 나타났다. 밝은 달빛 아래 비친 모습이 분명 여자였다. 머리칼을 풀어헤친 채로. 민 여인은 더욱더 자신을 염불삼매에 붙들어 두려 애썼다. 그때 그 정체 모를 여인의 입에서 말이 굴러 나왔다.

"나는 이 관 속에 들어 있는 사람과는 10생에 맺은 원한관계에 있다. 그는 내 부모를 살해하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식들을 감옥에 집어 넣은 철천지 원수다. 그래서 나는 늘 이 사람을 방해하려 하였다. 그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

민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 하겠는가?"

"원한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과 스님네의 염불공덕에 의해 나는 원결을 풀고 자비로운 마음이 되었다. 나는 원한으로부터 해탈을 얻었다. 더 이상 원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나게 되었다. 이 모두가 그때의 간절한 염불삼매 덕분이다."

말을 마치고는 하늘하늘 날아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민 여인이 산발한 귀녀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 여인은 한결음에 관 앞으로 달려들었다. 관을 묶은 매듭을 풀고 뚜껑을 열어 쫓았다. 거기에 백 부사가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수의를 풀어 해쳤다. 그러자 백 부사의 얼굴에 화기가 돌았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동자에 점차 안정이 깃들어가 갔다.

민 여인은 남편 백 부사를 관에서 부축해 내었다. 그리고 불영사 요사채에 방 하나를 얻어 안정시켰다. 사흘 뒤 백 부사는 완전히 기운을 얻어 관아로 돌아왔다. 이 소식이 강원 감사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중종의 귀에 들어갔다. 중종은 소식을 접하고 만조백관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는 현재 유교를 근본이념으로 덕을 펴고 나라를 다스리거니와 부처님의 덕화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중종은 이어 말했다. "지필목을 대령하여라. 긴히 쓸 것이 있느니라." 종이와 붓과 먹을 대령하자 중종은 어필로써 불영사의 대웅전 간판을 '환생전'이라 고쳤고, 요사채 큰 방의 현판을 '환희료'라 고쳐 영원히 기쁨이 되게 하였다. 백 부사는 그 후 1년 뒤 강원 부사로 영전하였고, 다시 얼마뒤 중앙으로 올라와 내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내직에 처하면서도 특별히 불교를 믿도록 허락되었다. 민 여인은 그 후 열심히 부처님을 신봉하였으며, 불영사에 불랑당을 사서 시주하고 또한 그 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수시로 공양하였다.

-모든 삶의 형태가 무심히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독특한 신심에 온 몸으로 전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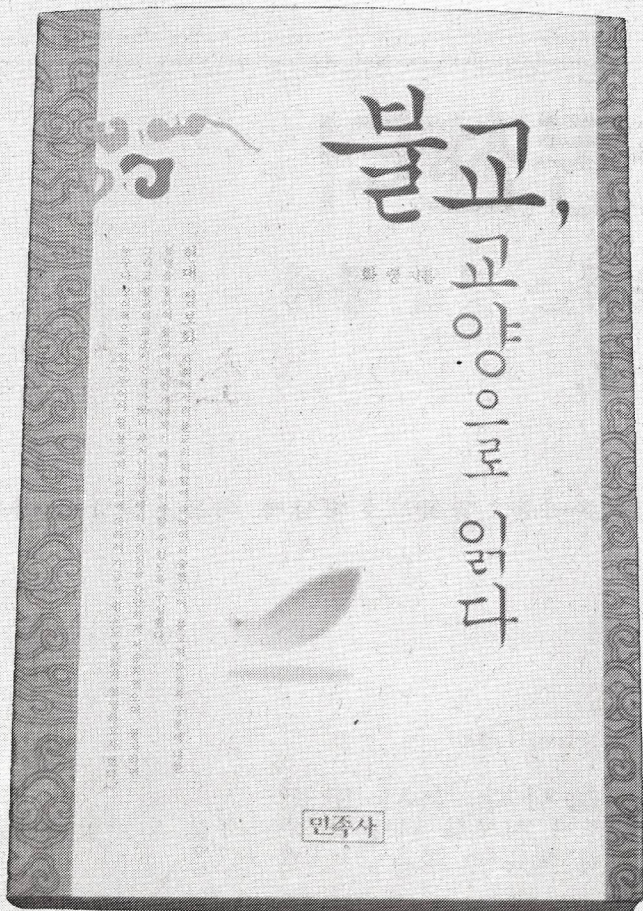
- 최영해

<불교, 교양으로 읽다>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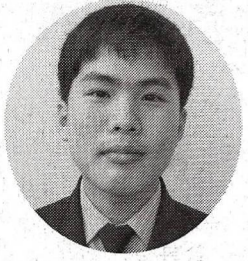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총지문에



손덕찬
동해중 2-6반

시나브로, 우리의 조상들이 창조한 우리의 말로써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의 풍파에 휩쓸리며 사라져가고 있는 말들 중 하나이다. 이런 말들은 이 쾌속적인 사회 속에서 어쩔 도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시나브로의 정신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아시다시피, 시나브로의 뜻은 '알

시나브로

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이다. 이런 아주 느린,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여유를 표현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오던 시나브로의 정신, 시나브

로의 사회는 점점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은 전화와 비디오 스크린, 컴퓨터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서로에

영하던 그 때가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교류하던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많은 풍요와 편의를 누리려고 있지만, 시나브로의 정신이 망각되어가는 이 때, 우리들은 점점 공허해지고 자신의 참다움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속도와 정보 속에서 해매이는 우리들을 말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잊고 세계의 흐름에 휩쓸려 방황하는 것이 아닌 시나브로의 정신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조상들의 정신일 것이다. 끊임 없이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세계에 발 맞추어 바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내면의 자신을 따라서 많은 것을 즐기며, 많은 것을 느끼며, 시나브로의 정신으로 자연과 함께 느리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닐까?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여유를 표현

시나브로의 정신으로 느리게 살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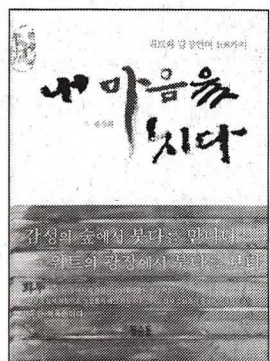
로 자연과 동화되어,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한 박자 느리게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던 그 정신을 우리는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 신념의 형상인 야트막한 담판을 쌓고 찾아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마을의 키 큰 소나무 아래 모여 답소를 나누던 그 때, 비록 과학적인 편의는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어두고 두 팔을 벌려 누구든 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온 이래, 인

이달의 추천도서

내 마음을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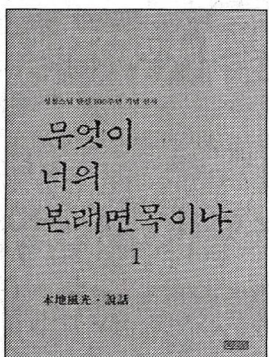
윤창화 지음/ 동송동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약 108가지를 선정하여 유훈과 감성, 해학과 풍자라고 그 의미를 해설한 책, 각각의 단어마다 위에는 유훈과 감성, 해학과 풍자가 배어있는 해설을, 아래에는 실제 이해되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적었다. 엄숙하고 난해한 불교어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겠다고 말하는 저자는 화두·참선·깨달음·공·무아·본래면목, 무상·번뇌·업·윤회·색즉시공·극락·부처님 등 108가지 불교 언어를 재치 있고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성철지음 /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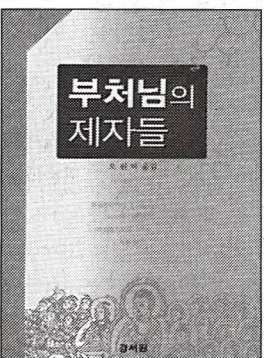
성철스님의 대표적인 저술인 『본지 풍광』에 큰스님의 육성을 정리하여 "본지풍광설화"의 형태로 펴낸 책이다. 성철스님은 19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해 동안거부터 안거 기간 결제일과 해제일, 음력 보름달과 말일에 상당법문을 하셨다. 이 책은 이 때의 상당법문을 모은 것이며, 성



철스님이 겹겹으로 단지고 있는 공안과 함께 성철스님이 직접 전하는 주석이라고 할 만한 육성법문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법회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

오원택지음 / 경서원



안마의 우 누 수상의 요청에 의해, 1956년부터 13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24분의 부처님 이야기도 포함하는 부처님들의 위대한 생애를 서술하였다. 그 원문이 방대하여 이 책은 그 중 일부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리불, 목건련, 마하 가섭, 쫄라뻘타까 등의 이야기를 부처님의 제자들이 과거생에서 세운 서원, 부처님과의 만남, 반열반에 들 때 부처님께

서 하신 법문으로 구성하였다

참 불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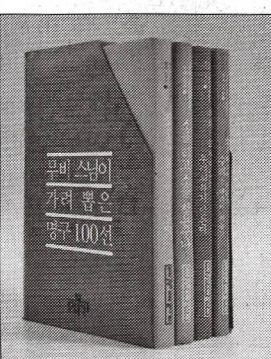
군맹서진 지음/ 구달



석존이 개교하신 이래 25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의 참의미도 많이 흐려지고 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불교에 입문하여 잡교와 잡행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이들이 없도록, 오랫동안 정법불교 연구에 몰두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참불교의 의미를 되새긴다. 본문은 크게 기초편, 입문편, 실천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에서부터 불교의 교리 그리고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하였다.

무비 스님이 가르 뵈은 명구 100선

무비 스님/ 불광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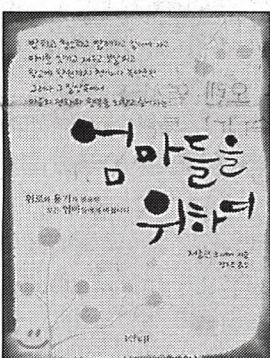


방대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무비 스님이 가르 뵈은 명구 100선』시리즈는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명구를 엄선하여 명쾌한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지친 일상을 달래고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세트는 명구 100선의 완결편인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를 포함하여 그동안 출간되었던 시리즈 4권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일상생활 틈틈이 무비 스님이 가르 뵈은 짧은 한마디 명구를 읽음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들을 위하여

재클린 크래머지음/ 강도은 옮김/ 산티



25년간 불교 수행을 해오며 출가 수행자를 꿈꾸기도 했던 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머니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통해 자기 성장과 마음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기까지 엄마의 길을 걷는 여성만이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에 자애심, 단순함, 무조건적인 사랑 등 불교의 가르침을 차분하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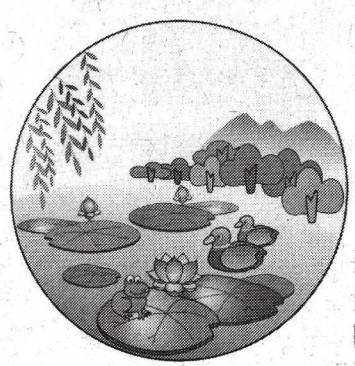
반복되는 집안일과 아이 키우기에 지치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순간순간 갖춰야 하는 엄마들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에게 위로와 용기, 만족스러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전해줄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정성을 합니다. '람' 자를 관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에서 힘이 쭉 빠집니다. 그 순간 무엇이 빠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무엇일까요?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주시하였다 그녀는 서랍장을 뒤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빨간색 양말을 꺼내 들고는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양말을 신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갑니다 쌀, 콩, 현미찰쌀, 차조, 울무 등 여러가지 잡곡들로 정성껏 밥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냉동실에서 얼린밥을 전자렌지에 데워 먹었는데... 반찬도 정성들여 만들기 시작하는게 아닌가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봅니다 계란말이도 양파와 브르커리를 잘게 썰어 넣고 이쁘게 만드는데 아닌가 김치가 넣어 두었던 보온 도시락을 꺼내 깨알절임, 계란말이, 마른새우볶음, 메추리알을 넣은 장조림, 미역국... 정성스레 찬 도시락을 내려다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색깔의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도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궁금하여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의 좁다란 골목길을 돌아 뒷 산으로 올라 갑니다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 살금 뒤 쫓아 갑니다 그녀는 산 길옆 줄기만 남은 개나리와 인사를 합니다 "안녕, 개나리야 지금은 모든 것을 단풍잎, 은행잎... 등에게 자리를 내

'람'자 관하는 순간 마음 고요 지난 일년 하늘에 그리며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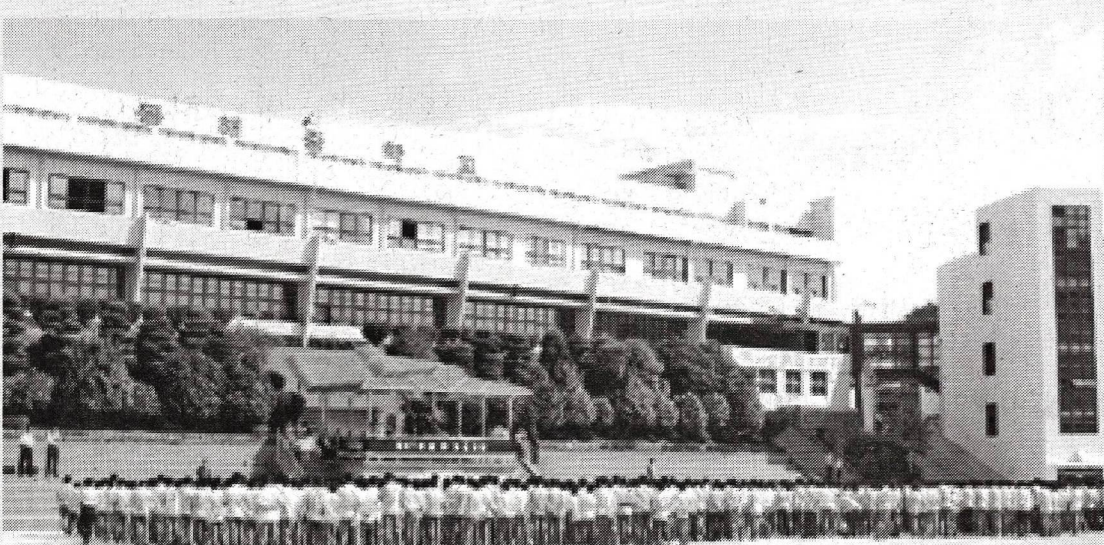
어 주었지만 이른 봄 노오란 얼굴로 활짝 웃음 지으면 너를 보는 순간 모든 이들의 가슴엔 행복이 가득하여 진다. 조금만 참으렴 머지않아 봄이 온다. 그녀는 숲속의 소나무와 두런 두런, 작은 풀벌레와 소곤소곤 무슨 이야기 일까? 몹시 궁금하지만... 그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계속 산으로 오릅니다 산 중턱 팔각정에 이르러서는 가지고 온 도시락을 펼칩니다 산새, 풀벌레, 나뭇잎의 흔들림 소리를 들으며 알록 달록 정성스럽게 찬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연실 주위의 모든 것들과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낙엽이 쌓여있는 곳을 찾아 하늘을 보며 누워서 노오란 크레파스로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렸다 지웠다 그녀가 그린 그림이 보고 싶어 그녀옆에 살짝 누웠습니다 지나온 일년 동안의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꼭 껴안았다 포근함이 전하여 몸을 느끼는 순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 박정희



기사제보 충지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와 원고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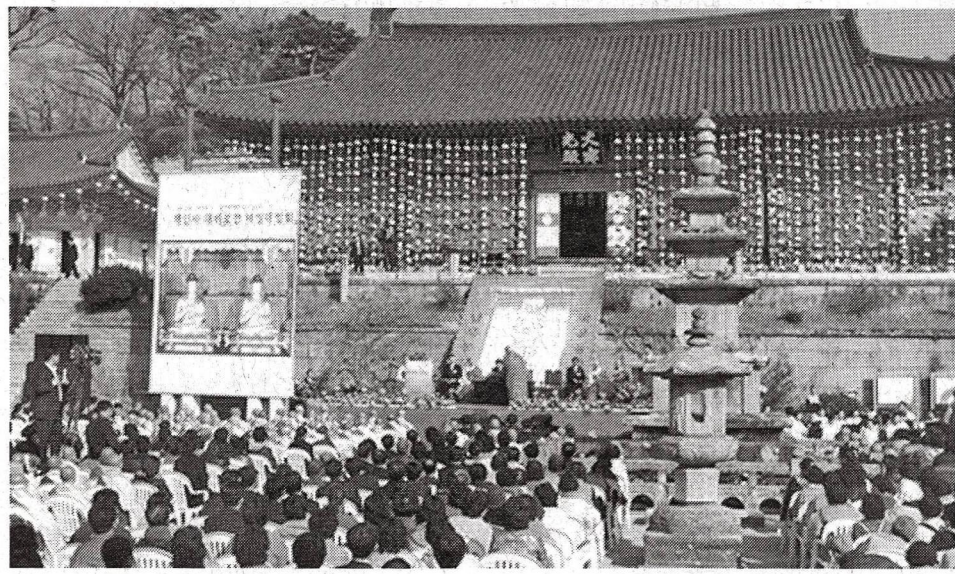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비로자나 자비광명 내려주소서”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노대통령 법회 참석



◇해인사에서 대비로전 낙성법회.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해인사대비로전 낙성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이로인해 국운이 융창하고 민족이 통일되며 국민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서원 자비광명으로 섭수소서”

9세기 조성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비로전이 낙성됐다. 해인사는 11월 24일 오후 1시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해 대비로전 낙성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발견당 시부터 해인사 비로자나불에 큰 관심을 보여 온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대통령은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큰 탈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조 비로자나불을 모신 해인사 대비로전은 화재에 대한 열 감지기는 물론 유사시 불상이 지하 별실로 자동 이동하는 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인사 측은 소개했다.

승산스님 제자들 世界一花 계승

내년 9월 20~21일 폴란드서 세계일화대회

대륙별로 돌아가며 대중법석-토론회 개최



◇승산스님의 세계일화 계승을 다짐하는 법회.

“세상은 한 송이 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피부색이 틀리고, 나라가 틀리고, 언어도 틀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일체의 분별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불법 앞에 모든 인종과 국경

이 무의미하다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은 본래 민공 스님의 법어다. 승산 스님의 법어로도 알려져 있다. 승산 스님은 경허-민공-고봉으로 이어진 법맥을 이어받았다. ‘세계일화’의 가르침은 사실 민공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법’인 셈이다. 승산 스님은 처음 한국불교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래 평생 ‘세계일화’를 실천했다.

스님의 그 뜻은 수많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유럽에서 ‘세계일화’가 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 20~21일 폴란드에 위치한 동유럽 본부에서 승산 스님의 제자들이 ‘세계일화대회’를 열기 때문이다.

내년에 열리는 ‘세계일화대

회’는 처음이 아니다. 승산 스님의 원력으로 1987년 수덕사에서 처음 시작됐다. 3회 대회까지 수덕사에서 열린 ‘세계일화대회’는 이후로 각 나라에서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승산 스님을 통해 ‘법’을 알게 된 백인의 제자들이 승산 스님의 가르침인 ‘세계일화’를 계승하기 위해 ‘세계일화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

‘세계일화대회’는 지금까지 총 7번 개최됐다. 2005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다. 승산 스님 입적 후 처음 개최된 대회이기도 했다. 이번에 열리는 폴란드 대회에서는 이틀간 주제 발표와 토론, 참선에 대한 의견 교환, 선문답, 논문 발표 등 각자의 연구 성과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회를 위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멕시코, 중국, 리투아니아 등 세계 각 국에서 활동 중인 100여 명의 수행자들이 폴란드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회 일정이 끝난 직후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크라카우, 체코의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지에 설립된 선원들과 유적지 등을 순례한다. 마지막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부에 건립되고 있는 유럽 최초의 전통 한국식 사찰 원광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빈민종합병원 건립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병원 건립 후원행사 열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설립한 복지구호단체인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11월 22일 오후 5시 시내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 BWC병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성관스님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통받는 불교국가에 대한 자비행을 실행하겠다는 목표로 캄보디아 후원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캄보디아 뿐 만 아니라 제3세계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각스님과 재무부장 장적스님, 중앙종회의원 일문, 의연, 정

범스님 등 스님들과 참여불교제가연대 김중건 상임대표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복지사업에 대한 후원을 약속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캄보디아 아동센터에 건립,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BWC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BWC병원은 200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내과를 우선 개원한 뒤 안과와 치과 진료로 시작할 계획이다. 로터스월드는 2012년까지 종합병원 규모로 BWC병원을 확대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불청, 불교청년 결의대회 개최

18일 광화문서 “종교편향 후보-언론 거부”



◇대불청 불교청년회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결의를 다짐.

“종교편향 발언 일삼는 대통령 후보를 거부한다. 또 대선정국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보도를 일삼고 불교를 폄하한 조선일보의 구두 거부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불법 수호와 민족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 이하 대불청)의 열정은 영하의 날씨로 잔뜩 움츠러든 광화문을 뜨겁게 달궜다.

대불청은 11월 18일 오후 광화문에서 ‘불법수호와 민족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불교 청년 결

의 대회’를 개최했다. 대불청의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경부운하 반대 108인 서명 운동, 봉암사 결사60주년 기념법회 참가, 불교청년 3000배 기도정진의 연장선상이자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대불청이 이날 주장한 것은 두 가지.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로 불교를 폄하하는 보수 언론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종교

편향적 성향의 대선 후보 반대다. 이를 위해 대불청은 조계종에서 중단한 조선일보 구두 거

부 및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종교 편향적인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경부운하 대선 공약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대불청은 ‘박’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 결의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대불청이 깐 박에는 ‘종교편향’, ‘반통일’의 글자가 붙어 있었다. 대불청은 “박”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 민족의 상생과 평화에 반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청년 불자들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12월 대선에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광화문에서 조계사까지 삼보일배 정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승가회 사무처장 가섭 스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김호 집행위원장, 경부운하 반대 국민행동 이상곤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한편, 대불청은 오는 25일 인사동 ‘천강에 비친 달’에서 북한 동포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을 열고 수입금 전액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말법시대 등불이 되라”

불기 2551년 동안거 결제



◇조계종 법전종정 결제법어 발표

불기 2551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11월 24일 합천 해인사 해인선원에 방부를 들인 41명의 대중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결제 법문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참구하는 것의 답을 알게 된다면 말법시대에 희미해진 등불을

환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해인사 방장)은 11월 24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불기2551년 동안거 결제법회에서 “동안거 동안 열심히 화두 참구하라”며 대중을 격려했다.

법전스님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잘 달리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고사를 예로 들며 “세존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채찍을 보이신 곳을 알고자 한다면 오로지 화두를 간절히 드는 일 뿐”이라고 법문했다.

결제 하루전인 23일 백련암에서 기자들과 만난 해인사 수좌(首座) 원웅 스님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화두를 받아 지니고 한 순간도 여의지 말고 참구하면 홀연히 깨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불법(佛法)의 도리를 만난 금생에 공부를 해 마친다는 각오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해인사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는 2200여 명의 수좌들이 동안거에 입제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우마니반베후>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들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번역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종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낙산사 원통보전 낙성식

모든 불자와 국민의 정성으로 복원



◇낙산사 원통보전 낙성식회.

대형산불로 소실된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원통보전 낙성식과 범종 타종식이 봉행됐다.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김진선 강원지사, 정문헌 국회의원 등 강원도 내 각급 기관단체장, 일반 신도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불자님들과 국민의 피나는 정성을 모아 이와 같이 웅장하게 복원하고 오늘 낙성식을 갖게 됐다"며 "복원에 힘써준 관계자 여러분에게 종단을 대표해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회위원장 자승 스님이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해수관을 기도도량인 낙산사를 되찾았다"며 "단순히 화재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굴조사를 통해 전통 가람배치를 복원하고 낙산노인전문요양원 등의 교육·복지시설까지 건립하는 그야말로 가람을 일신하는 거대한 불사가 이뤄졌다"고 축하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축사에서 "지난 2005년 4월 산불로 귀중한 보물인 동종을 비롯해 주요 전각들이 모두 소실돼 전 국민을 아파게 했으나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오늘의 큰 결실을 맺게 돼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관음신앙 성지로 알려진 낙산사는 2005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울창했던 소나무숲과 법당인 원통보전, 요사채 등 건물 14채와 보물 479호인 동종이 소실됐다.

화재 이후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자문과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통보전과 종루를 비롯해 심검당, 선열당, 흥예문, 연화당, 취수헌 등 소실된 전각 대부분을 복원했다.

보물 제1362호인 건칠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된 원통보전은 발굴작업을 통해 확인된 조선 초기의 절터와 같은 형태로 복원됐으며 정면 3칸과 측면 3칸의 정방형 구조에 화강석 기단과 배흘림 기둥, 팔작지붕 등 전통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동종 또한 사진과 탁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해 10월 복원됐으며 신도들의 복원 불사로 제작된 범종과 함께 십자형 팔작지붕의 누각인 종루에 안치됐다.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경내 주요 시설물은 내년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낙산사는 국민 성원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산불 이후 지금까지 입장료 폐지와 낙산유스호스텔 개방, 점심식사로 국수 공양 등을 실행하고 있다.

정법 주지 스님은 "화재 이후 2년여 만에 원통보전 낙성식과 범종 타종을 갖게 된 것은 강원도민과 온 국민의 염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천년만에 불상으로 돌아온 김교각 스님

경주 동국대 캠퍼스에 봉안



◇봉은사에서 봉행된 김교각 스님 목조상 봉안 법회.

신라 왕족 출신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지장보살(地藏菩薩)로 추앙받아온 김교각(696-794) 스님의 입상(入像) 봉안 법회가 23일 오후 2시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에서 열렸다.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가 제작해 기증한 3m 높이의 이 입상은 지난 20일 중국 구화산(九華山) 육신보전에서 점안법회를 봉행한 뒤 중국 종교사무원 예샤오원(葉小文) 국장이 이운단을 이끌고 한국으로 모셔왔다.

이 조각상은 봉은사 법회 후 김교각 스님의 고향인 경주에 있는 동국대 캠퍼스에 봉안된다. 조계종 총정법전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일천년전 신라왕손께서 붉은 비단옷을 버리고 황해 건너 안후이성 구화산에 도착해 기운 누더기가 열린 무거운 되도록 정진하던 지장(地藏) 대승위(大聖位)에 올

랐다"면서 "근역(權域, 무궁화가 많은 땅 곧 우리나라)과 중화(中華)의 불이(不二)를 육신불(肉身佛)로 시현(示現)한 이래 양국민의 전통 우의는 빈주불이(賓主不二)로 법류(法流)와 함께 면면(綿綿)하였다"고 밝혔다.

신라 성덕왕 19년(720년) 중국으로 건너간 김교각 스님은 구화산에서 75년간 수행했다. 생전에 스님의 교화활동이 지장보살과 흡사하다고, 해서 중국인들로부터 '신라 김교각 중국 지장왕'으로 불리고 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중생제도에 나선 불사이다.

김교각 스님이 입적한 뒤 3년이 되는 해에 유해가 담긴 항아리를 열어보니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 신도들이 등신불로 만들어 육신보전이라 불리는 탑에 봉안됐다. 봉은사에서 봉안법회를 가진 입상은 등신불이 아니라 따로 제작한 지장보살상이다.

이날 법회에는 국회부의장 이용희, 이상득, 닝푸이 주한중국대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정사,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자승스님,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등 사부대중 4천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의 날' 잔치 열어

"생명나눔의 길 위에서 함께 해 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명나눔이 있어 우리 모두 행복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11월 22일 서울 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2007 생명나눔의 날-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기념식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해 올해도 정성껏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불교학 르네상스 이룰 터"

한국불교학회 신임 김선근 학회장 선출



김선근 교수

"우과니사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종생의 근기에 따라 개울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된다." 김선근 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자리에서 이를 인용해 학회가 부처님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11월 17일 제47회 한국불교학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의원 총회는 사부대중이 가득 메웠다.

해원 스님(선학과)과 경합 끝에 74:69의 5표차로 당선된 김 교수는 "시방제불과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학회회장으로서의 소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의 운을 땀다. 김 교수는 "재단사무처장을 했던 행정적 경험을 살려 회의진행 및 회칙·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학회를 임원진 몇몇이 아닌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을 말했다.

앞으로의 학회 운영에 대해 그는 "전통 불교학을 하는 학회, 불교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학회로 만들겠다. 사부대중의 뜻을 하나로 모아 불교학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김선근 학회장의 임기는 전임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2008년 불교학결집대회가 끝나는 5월 18일 이후 시작된다. 그가 선출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무리없이 봉합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학회로 운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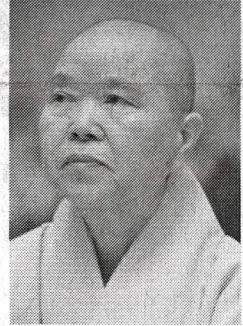
조계종 비구니회장 명성스님 재추대

비구니 위상강화 노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9대 회장에 명성 스님이 재추대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3층 강당에서 제6차 총회를 열고 명성 스님(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11년 11월 20일까지 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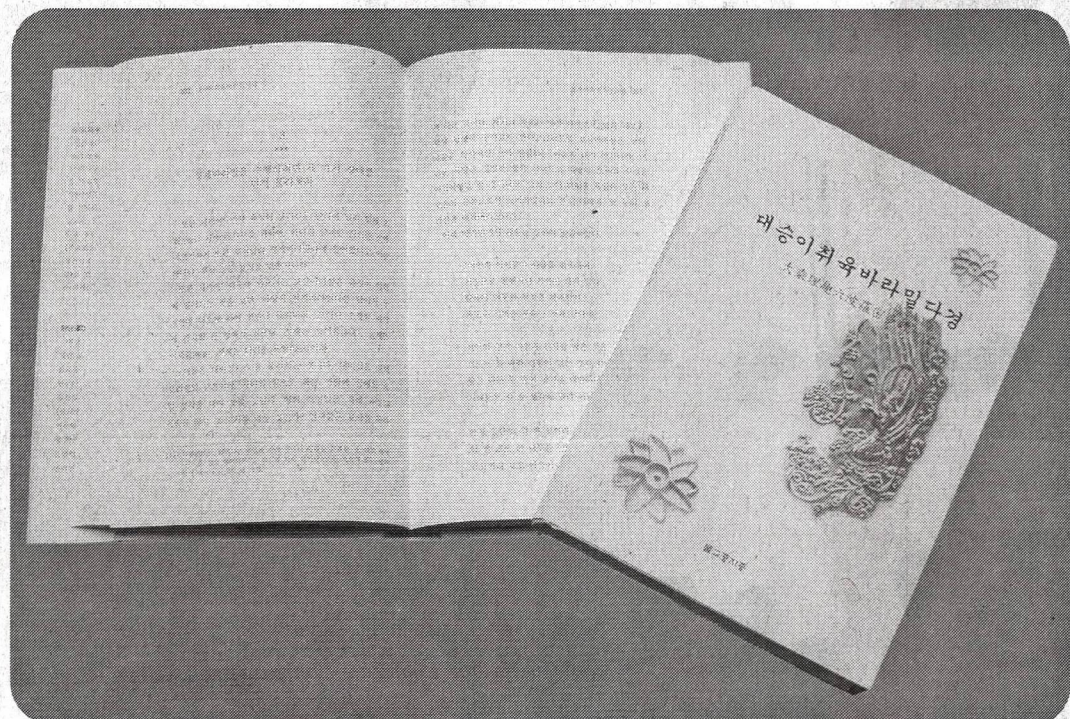
명성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에서 신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8년 승주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0년 청도 운문사 강사로 취임한 뒤 운문사 승가대학장과 승가대학원장을 맡아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8대 비구니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비구니회는 이날 총회에서 ▲원로회의 신설 ▲임원의 임기와 선임 ▲운영위원회 구성 ▲법치방법 ▲임원 자격 등 회칙을 개정했다. 특히 임원 자격 중 원로는 승남 50세, 법계 명덕, 세남 72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대하도록 했다. 회장은 승남 40세, 법계 명덕, 세남 65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명성스님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478페이지 / 정가 15,000원

불교총지종법장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총지 FOCUS / 포항 수인사 헌공 불사

“지극한 발원으로 아름다운 도량 건립”

11월 20일 포항 수인사엔 경사가 있었습니다. 오랜 정성과 노력으로 훌륭한 전법도량을 만들어 헌공불사가 올려진 것입니다. 이날 주요 장면을 화보로 엮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수인사 헌공불사 증명범어



불심 가득한 도시이며, 조국 근대화(近代化)의 요람(搖籃)인 포항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법계 도량을 부처님 전에 헌공드립니다.

이 전당(殿堂)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 깊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당은 자재원만한신 법신불의 도량으로, 금강 법계공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그리고, 일체유정들의 복덕의 원천(源泉)으로, 또한, 고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죄업중생의 수도 해탈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에 상주하여 영원불변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하오니,

이 수인사가 미래제(未來際)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옵고, 우비고뇌(憂勞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주춧돌이 되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간소한 헌공으로서 불전에 헌공하오니 영겁토록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지혜가 함께 하옵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총기 36년 11월 20일

종령 호강 합장



종령 예하 헌공사



원승 통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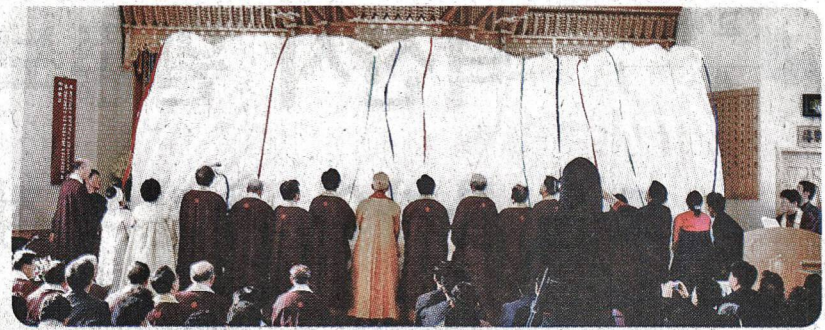
수인사 지공 주교



대구경북지회장 권오남 보살



수인사 신정회장 한애숙 보살



본존 제막 순간



헌공불사에 운집한 사부대중



정각사 교도들의 육법 공양



서원당에 못들어간 교도들을 위해 비디오 화면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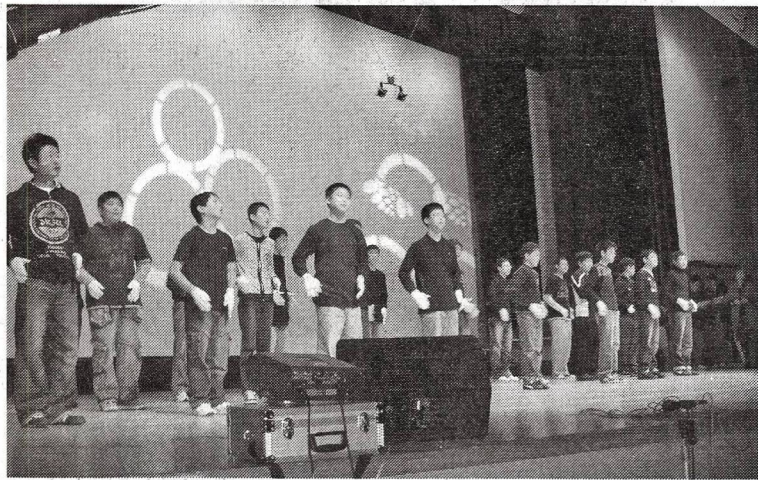
부산 만다라 합창단의 음성 공양



육법 공양 중 미(米) 공양



“동해인의 재능, 잠재력 개발” 종립 동해중 추계 학예발표회-체육대회



충지중 종립 동해중(교장 박수현)은 11월 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본교 교육문화회관과 대운동장에서 총동문회,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학습 및 특별활동을 통해 갈고 닦아 온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학예발표회와 건전한 마음과 튼튼한 육체를 단련하고 선후배간의 친목과 단결심을 고취시키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예발표회는 전승주 외 25명으로 구성된 모듬북 공연을 필

두로 오카리나 연주, 김정연의 판송 독창, 허운호의 바이올린 독주, 합기도 무술, 김춘삼 교사의 섹스폰 연주, 학부모들이 참가한 학부모 무용공연의 제1부 행사와 조정훈, 류희영 교사와 유영덕, 김대영 학생으로 구성된 보컬공연, 난타공연, 연극공연, 김창준의 수화, 비트박스, 미술 공연, 미스동해 선발대회, 풍물 놀이의 제2부 행사로 펼쳐졌다.

특별활동을 통해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이번 학예발표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들의 재능과 장기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해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익일에 진행된 체육대회는 전학년의 50미터 달리기, 학부모와 동문, 교직원들의 장애물

달리기, 학년 별 학부모 릴레이, 퀴즈왕 뽑기의 친목도모 행사와 선후배간 일체감을 형성하는 축구, 릴레이, 씨름, 제기차기, 줄넘기 종목으로 펼쳐져 동문과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하나되는 어울림 마당이 펼쳐졌다.

동해중 박수현 교장은 “학생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예발표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의 발휘로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성사, 김한상 교도 경희대 부총장 임명 진언행자로서 학교발전 공헌



충지중 관성사 김한상(사진) 교도가 지난 11월 21일 경희대 학교 부총장으로 임명되어 진언행자가족들에게 감사스러운 선물을 안겨 주었다.

김한상 교도는 경희대학교 인문학부 스페인어학과 교수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수원 캠퍼스 이름을 ‘국제캠퍼스’로

바꾸고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과외공부를 받도록 하는 인터존 설치로 정규 수업과 별도로 교수의 지도 아래 대학원생이 후배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링’ 인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교발전에 공헌하여 왔다.

김한상 교도는 관성사에서 지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김호연 각자와 현정원 보살의 둘째 아들로 수행정진하여 왔다.

주변이웃과 함께한 부처님 세상 총지사, 개천사, 법황사 불우가정 돌봄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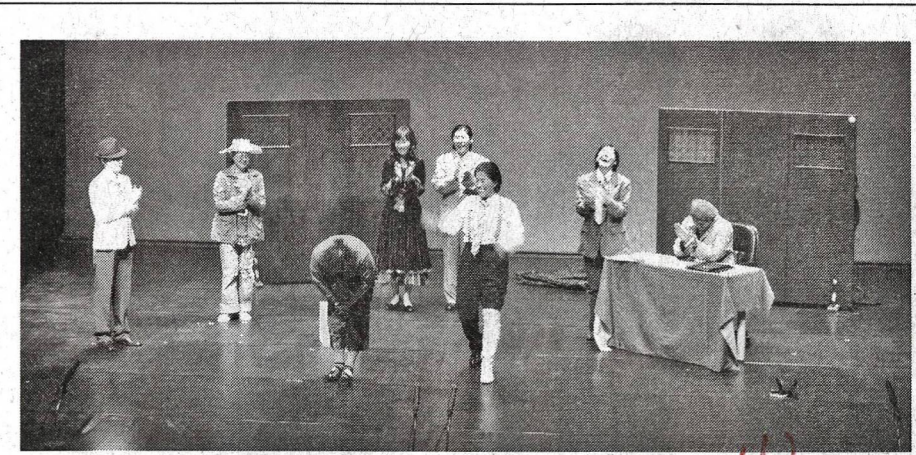
▲총지사 김은숙 회장이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총지사(주교 선도원)와 대구 개천사(주교 경원), 광주 법황사(주교 승원)는 사원 주변

독거노인과 불우가정에 매달 쌀과 밀반찬을 배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증생을 구제하라”는 부처님의 대승적인 실천 운동으로 세 사원은 자비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세 사원 주교는 “자비를 베푸는 데는 나와 너의 분별을 떠나고, 기독교, 불교의 종교적 사상을 배격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부처님 동체대비의 자비실천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비실천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의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다.”라며 선행을 감추려 하였다.



11월 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물레 빠진 사나이' 연극 공연. 총지사 총무 손경옥보살이 출연해 열연했다.

세상사는 이야기

가을은 내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다.

멀리 단풍여행을 갈 필요도 없다. 어디를 가든 모두 단풍이 들었다. 길가의 가로수도 모두 모두 예쁘게 물들었다. 아파트의 나무들도 화려한 축제의 의상으로 갈아입고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초대를 하고 있다. 이들의 축제에 초대받은 나는 이 박찬 순간 가슴이 막 뚫다. 나도 예쁜 옷으로 갈아 입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싶다. 영화에 나오는 멋진 무용수들처럼.

지난 밤 심술쟁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전갱이의 잔해인양 떨어진 낙엽만 쌓였다.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마당의 낙엽을 깨끗이 쓸고 계셨다. 쓰레기와 함께 사라져 가는 낙엽들을 보니 마치 내 가슴 밑바닥에 숨겨 두었던 조그만 나만의 소중한 것들이 슬러 나가는 듯 가슴 한구석이 쓰리고 아프다. 가을이 내게서 떠나고 있다.

“아저씨 낙엽 쓸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말씀 드렸다. 아저씨는 ‘씨’ 웃으시며 다른 입주자들이 지저분하다고 한다. 아침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쌓여있는 낙엽을 한 움큼 집어 하늘에 날려본다.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새하얀 솜사탕 같은 몽타구름이 내 눈에 들어온다. 쓰리고 아팠던 가슴이 조금은 위

낙엽이 떠나간 자리

로가 되는 것 같다. 내 머리 위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올려다 보니 지난 봄 일찍 꽃을 피워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반하게 했던 그 목련이었다. 우리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물든 단풍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내 머리 위로 떨어진 낙엽은 내게 그들도 있음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었으리라.

“그래 너희들이 있음으로 빨간색 노란색이 더 빛을 발하게 하

고 있구나. 너희들이야말로 묵묵히 이 축제를 빛내 주고 있는 일등 공신들이다.”

떨어진 목련 잎을 하나 주워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자연에서 갈색은 인간이 흉내 내지 못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 새로운 발견이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목련 잎을 책갈피에, 구겨질새라 곱게 꽂아 놓았다. 나 혼자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듯... 내 아팠던 가슴이 다 나아버렸다.

가을이 떠난 자리에 낙엽만 쌓여 있다.

낙엽이 쌓인 길을 마냥 걷고 싶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한, 그런 친구라면 더욱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빨리 친구에게 전화라도 걸어보자. 어디가 좋을까? 이왕이면 낙엽이 포근하게 쌓인 곳이면 좋겠다. 그곳에 아무도 없는 빈 나

무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다가 빈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 가는 것도 좋으리라.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쁜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백의 미’가 아니겠는가?

문득 어느 작가의 글이 생각난다.

‘낙엽을 태우면 갖 북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는 글이 커피를 좋아하는 내게 깊이 각인된 것 같다. 정말 갖 북아낸 커피의 냄새가 나긴 나는 것일까? 작가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나도 낙엽을 모아 한번 태워보고 싶다. 낙엽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얼마나 정겨울까? 아마 맛있는 커피의 향도 틀림없이 진하게 퍼지겠지. 상상만 해도 좋다. 낙엽을 태울 공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대신 커피라도 진하게 타서 마셔야겠다.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겨 본다. 오늘 친구와 함께 낙엽 쌓인 산길을 꼭 걸어야겠다.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이면 좋겠다. 아니, 그냥 낙엽길이면 어디라도 좋다.



만다라 세상

진언 염송의 보다 큰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정화해 나가는데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유를 결정한다. 무의식의 세계마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현대 언어철학의 기본 골자이다. 하지만 이것은 라캉이나 리차드 로터 같은 학자들보다 훨씬 오래전 유가행불교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들이다. 『해심밀경』 이래 유식사상에서는 모든 종자를 언어활동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라고 파악해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적 수행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절에 간 당신은 왜 천수경을 독송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대부분의 불자들은 아무 답도 못할 것이며, 소수의 학식 있는 불자들은 다라니를 염송하는 생활이 곧 수

행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 김호성 교수는 이것은 제1 진언수행의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를 넘어선 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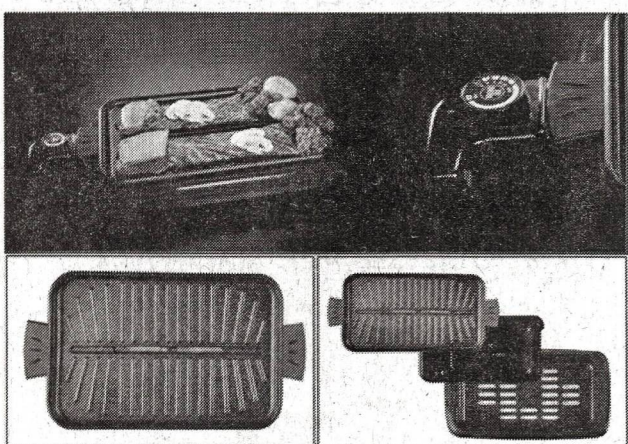
김호성 교수는 우리가 진언을 염송하는 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정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김 교수가 최근 발간한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에서 주장하는 제2의 언어수행론이다.

“종자가 언어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라식을 오염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알라야식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이미 오염된 알라야식마저 청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진언생활이 요청된다. 비록 소리는 사라질지라도 그 언어/구입의 나머지는 종자가 되어서 언어/명언(名言)/개념으로서 제8 알라야식에 축적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현행(現行)되면서 내일의 우리 삶을 구속하고 나아가서는 내생의 우리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언어생활을 정화해 가는 것이 바로 제2의 진언수행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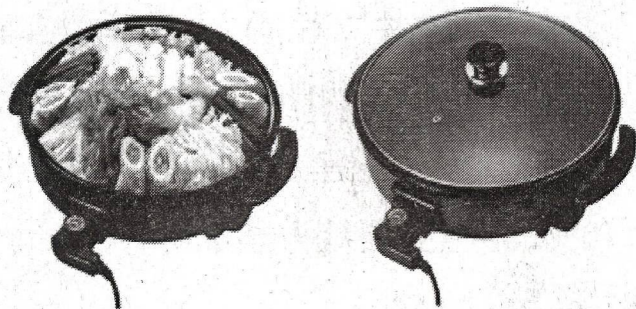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중에서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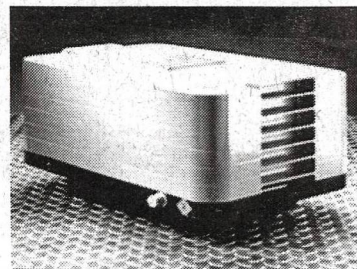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 제품명: 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 델: DWP-331
• 특 징: 조리팬, 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 격: 35,000



• 제품명: 피자팬 • 모 델: MU-1600N
• 특 징: 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 부침, 후라이, 전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 격: 24,900



• LD-528 6단



• 제품명: 음식건조기 • 모 델: LDDD-528
• 특 징: 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솔리드Tray2개
• 가 격: 소비자가 128,000(판매가 105,000)



• 리퍼저 키친(별매)

스팀다리미의 대표 브랜드... << 인기상품! >> 콘에어 스팀다리미

CONAIR GS1K Professional FABRIC STEAMER

360도 회전 가능한 스팀구이

싱거 스팀분사면통

면직모직계면직부여

다기능압력

• 제품명: (스팀다리미) 콘에어 스팀다리미
• 내구성: 연식 10년 이상
• 내열성: 150도 내열
• 내습성: 100% 내습

• 표시가격: 74,800
• 순가격: 45,000
• 할인: 39,800
• 연수사용시간: 1시간 30분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진언행자의 가족을 찾아서 | 관성사 신 일생(이타심) 교도

“지심으로 정진하면 부처님의 은은한 가피 느껴져요”



관성사에서 큰 아들 내외, 손자손녀와 함께.

“옴 마니 반메 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크고 있어요~”

“옴 마니 반메 흠!! 그래 귀여운 우리 애기, 참 착하구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자라야 한다”

신 일생(법명 : 이타심, 64)보살이 서쪽에 있는 어린 손녀와 나누는 대화다.

“옴 마니 반메 흠, 안녕하세요”

이타심 보살은 이른 새벽마다 하는 일이 있다. 아침 밥을 짓고 그 위에 ‘옴’자를 그리는데, 그리고 온 가족이 진언이 새겨진 음식을 먹어 건강해지고 힘을 내서 하는 일과 불공

수행을 잘 해 나가기를 발원한다. 전화를 하든 밥을 먹든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진언과 관련돼 있으니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모두 진언수행인 셈이다.

이타심 보살은 4남매를 두었는데 어려서부터 자성학교를 다니게 하고 육자진언을 가르쳤다.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와 장성해서는 크게 강요는 안하고 다만 월초불공일을 미리 알려 주고 진언수행을 권했다. 나중에 자청해서 서원당엘 나오더라. 지금은 온 가족이 신심깊은 진언행자가 됐다. 막내 아들은 결혼식 당일날에도 새벽불공을 하고 식장엘 갔다.

이타심 보살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성학교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진언행자가 될 수 있었다. 처녀시절엔 포항 수인사를 다녔고 결혼 후 상경해서는 관성사 교도로 오래도록 수행을 해오고 있다. 진언행자 가족 대개가 그렇듯 보살 역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면 불공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진력으로 어려웠던 여건에도 저희 6남매를 키워 내셨고 당신도 평생 무탈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지극한 신심을 내면 업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타심 보살의 여섯 형제들도 모두 교도이거나 사원 임원을 할 만큼 신심이 깊다.

이타심 보살의 남편 김 홍조(법명 : 도신, 71)각자도 든든한 도반이자 후원자이다. 김 각

감적으로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결과는 세 자녀 모두 합격. 보살은 신이 낫다. 자녀들의 합격도 기쁜 일이었지만 불공을 해 가면서 얻어진 정진력 때문에 더 흥이 났던 것.

“불공공덕은 참으로 신기하고 미묘합니다. 지심으로 정진을 하다보면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느껴지고 때로는 바로 법문을 해주시는 듯 해요. 진언수행으로 업식이 맑아지면 자연히 지혜안이 열리는 거겠지요.”

이런 일도 있었다 한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대학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독일에서 급작스런 위폐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이타심 보살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서원당으로 달려 가 불공기도를 올렸다.

고 어려운 것마저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타심이란 법명에 어울리게 보살은 남을 위한 봉사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총총한 눈으로 말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내 허물 불공 많이 합니다. 몸이나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고, 절에 가서도 주로 남이 안하는 허드렛 일을 찾아서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구요. 봉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남과 내 자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있었습니다.”

윤우체 기자

남의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내 허물 불공 많이 해 “감사의 마음으로 살다보니 모든 일 잘 돼”

자는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종교계도 훤히 알고 있었을 터. 한 번은 문화부 부하 직원에게 불교 관련 서적을 모두 가져 오라고 해서 당시 불교계와 각 종단들을 면밀히 파악해 보았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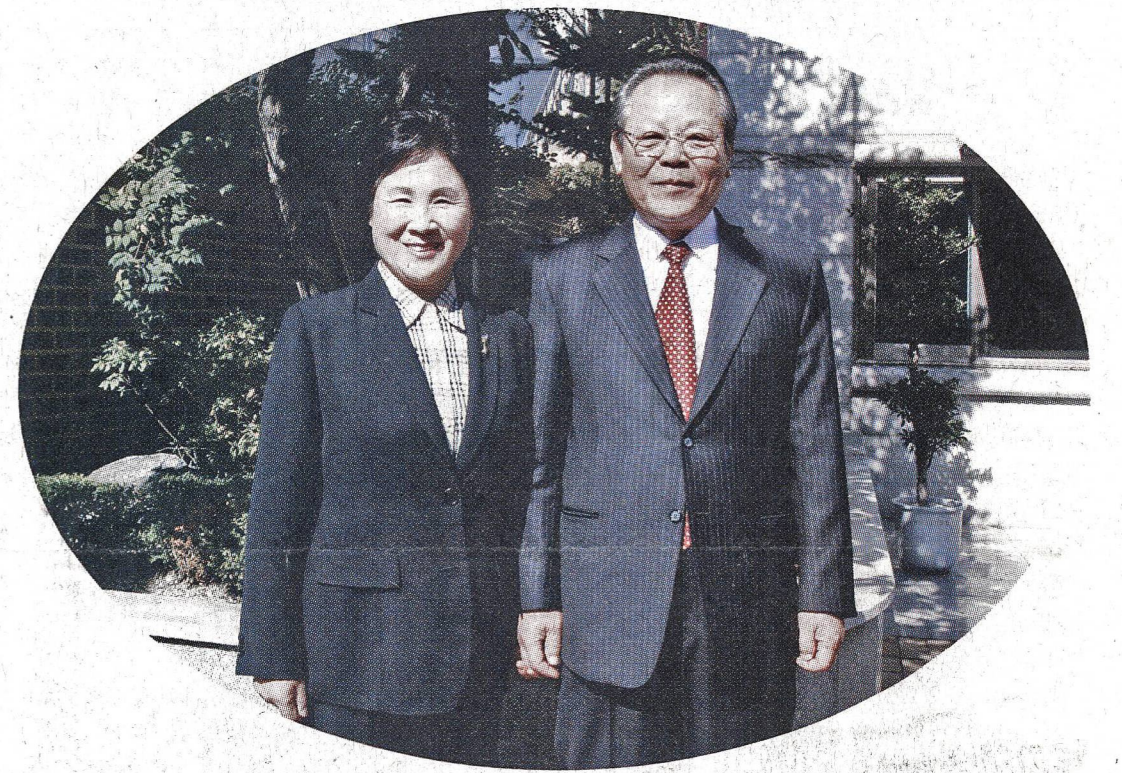
도대체 총지종이 어떤 종단이길래 보살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 덕분에 불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간단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게 됐다. 그 후 김 각자는 주위에서 ‘법사’ 소리를 듣는다고.

월초불공이면 기운 펴떨

“우리 보살은 서원당에 가거나 월초불공 때만 되면 기운이 펴떨 납니다. 아무튼 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종손 며느리로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수행 정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살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년 전 공교롭게 세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됐는데 모두 낙방을 했다. 이타심보살은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했지만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한 동안 낙심해 있었다. 하루는 다니던 절의 전수님이 “내 지식뿐 아니라 주위의 인연자들을 위한 불공을 해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이타심 보살은 매일 정승 말고도 3시간씩 100일 정진을 해 나갔다.

시험 당일 서원당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서울의 지정새는 까치입니다!”라는 소리가 흘러 나오더라. 직



관세음 보살이 대의왕으로 현신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거리에서 쓰러진 채로 있는 아들에게로 어디선가 한국인 의대생이 나타나더니 응급처치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타심보살은 이렇게 앓으나 서나 불공이다. 하루 기본 정승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7정진도 밥먹듯 했다. 불공수행이 고생스럽거나 해태심이 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보살은 오히려 “즐겁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 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통리원 전화 02)552-108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